

KIA '일요병' 극복하라



지난 1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타이거뱅크 KBO리그' KIA와 LG의 시즌 4차전 경기에서 2-2로 맞선 연장 11회말 KIA 이범호가 끝내기 안타로 경기를 끝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시즌 전적 3승4패로 승보다 패 많은 요일... 21일 두산전서 5할 승률 도전



시작이 좋은 KIA, 끝도 좋아야 한다. 지난 시즌 '5할 징크스'에 막혔던 KIA가 올 시즌에는 워닝시리즈 행진 속에 1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

넥센, 롯데, 삼성을 상대로 쌓아온 3연승을 만들었던 KIA의 최대 연승 기록은 6. 폭발적인 연승은 없지만 '꾸준함'으로 지키고 있는 1위다.

올 시즌 최다연패 기록은 3연패. kt와 SK를 만났던 지난주 3연패까지 기록됐다. 잘나가던 KIA의 시즌 첫 연속 루징시리즈도 지난주 처음 작성됐다.

타격 하락세까지 보이면서 2위 LG와 '디펜딩 챔피언' 두산을 만나는 이번 홈 6연전은 KIA의 위기로 예상됐다.

하지만 스타트를 잘 끊으면서 KIA는 LG와의 주중 3연전에서도 승률을 높이는

■ KIA 화·일요일 시즌 전적

◆ 화요일 6승1패

날짜	상대팀	스코어	승패
4월 4일	SK	6:1	승
4월 11일	두산	16:4	패
4월 18일	kt	5:0	승
4월 25일	삼성	11:3	승
5월 2일	넥센	9:3	승
5월 9일	kt	9:4	승
5월 16일	LG	3:2	승

데 성공했다.

'화요일 타이거즈'가 올 시즌 1위 행진의 원동력 중 하나다.

김진우(KIA)-차우찬(LG)이 맞붙었던 지난 16일 KIA는 연장 11회 승부 끝에 이범호의 끝내기 안타로 극적인 3-2승을 거뒀다.

어려웠던 경기에서 이기면서 KIA는 17일에도 소사의 벽을 넘고 승리를 더했다.

김기태 감독은 "만만치 않은 승부였다. 첫 경기 승리로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었다. 화요일 경기의 결과가 한 주를 풀어

◆ 일요일 3승4패

날짜	상대팀	스코어	승패
4월 2일	삼성	3:16	패
4월 9일	한화	3:2	승
4월 26일	넥센	7:6	승
4월 23일	LG	1:7	패
4월 30일	NC	1:12	패
5월 7일	롯데	5:3	승
5월 14일	SK	3:4	패

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화요일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물론 남은 5경기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올 시즌 KIA는 화요일 경기에서 6승1패를 거뒀다. 지난 4월11일 잠실에서 두산에 4-16 대패를 당한 게 화요일의 유일한 패배다. 먼저 1승을 챙기고 가면서 한결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주중 3연전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마무리가 좋지 못한 게 아쉽다.

김기태 감독은 "화요일도 중요하지만

목요일, 일요일 경기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목요일과 일요일은 이동일이다. 좋은 분위기 속에 다음 경기를 위해 이동을 하고, 다음 시리즈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목·일요일이 중요하다. 의미다.

하지만 유일하게 승보다 패가 많이 기록된 요일이 바로 일요일이다. KIA는 올 시즌 일요일 경기에서 3승4패에 그쳤다. 내 용도 좋지 못했다.

홍건희가 선발로 출격했던 4월2일 대구에서 3-16 대패를 당하고 돌아왔고, 좌완 정동현이 임시선발로 나선 4월23일 LG 원정에서는 1-7패가 남았다.

4월30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도 1-12로 크게 졌던 KIA는 최근 일요일 경기였던 5월14일 SK전에서는 9회 김동엽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고 쓸쓸히 먼 길을 내려왔다.

시작은 좋다. 하지만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서 월요일 휴식날의 즐거움이 반감되고 있다. 화요일 승리 행진을 이은 KIA가 오는 21일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일요일 약세를 딛고 일요일 승률을 5할로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

ML 코리아리거 소식

추신수, 4타수 3안타 3타점 1득점

'추추트레인'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제프 배니스터 감독의 고민을 덜어주기라도 하듯 1번 타자 자리에서 활약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1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3타점 1득점을 올렸다.

이번 시즌 세 번째 3안타 경기이자 두 번째 3타점 경기다.

추신수가 1번 타자 자리에서 실 새 없이 출루하면서 기회를 만들자 텍사스 공격도 술술 풀렸다.

텍사스는 필라델피아에 9-3으로 승리하고 8연승을 달렸다.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1천208경기 출전한 추신수는 1번 타자로 가장 많은 414경기에 나섰다.

하지만 텍사스 이적 후에는 2번 타자로 더 많이 출전했다. 올해에는 7~9번 등 하위 타순에 배치되는 날이 늘었다.

이날 경기로 추신수의 1번 타자 출전 일 타율은 0.421(19타수 8안타)로 올라갔다. 출루율은 0.556이나 된다.



추신수도 최근 출전한 6경기 중 5경기에서 1번 타자로 출전하며 톱타자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신수가 외야수로 더 많이 출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배니스터 감독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MLB닷컴과 인터뷰에서 "추신수가 외야에서 더 많은 경기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오승환, 2이닝 2탈삼진 무실점

'괘판왕'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사진)이 올해 처음으로 2이닝을 던졌다.

오승환은 1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 인터리그 홈경기에서 4-4로 맞선 9회 초 등판해 2이닝 동안 1피안타 1볼넷(고의4구) 2탈삼진 무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틀어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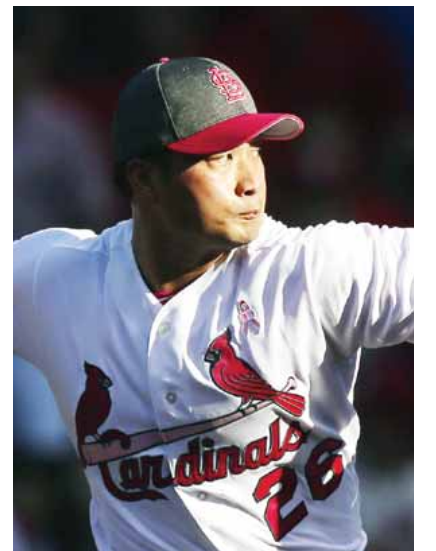
이날 경기로 오승환은 평균자책점을 2.89에서 2.61까지 다시 낮췄다.

최근 6경기 연속 무실점이며, 비자책은 13경기 연속이다.

시즌 10세이브를 기록 중인 오승환은 세이브 추가 기회를 잡는 듯했지만, 8회 초 트래버 로슨율이 2실점 해 4-4가 되면서 동점 상황에서 등판했다.

이날 오승환의 결정구는 체인지업이었다. 이번 시즌 종종 슬라이더를 타자에게 공략당한 오승환은 첫 타자 제키 브래들리 주니어를 1볼 1스트라이크에서 체인지업으로 외야 뜬공 처리했다.

이어 샌디 레온 역시 1볼 2스트라이크에서 체인지업을 던져 1루수 땅볼로 잡아냈다.



강속구도 여전히 위력적이었다. 오승환은 데본 마레로에게 시속 151km 높은 속구를 던져 삼진을 뽑았다.

연장 10회 초에도 등판한 오승환은 첫 타자인 대타 조시 러블리에게 포수 쪽 뜬공을 유도했지만, 포수 야디에르 몰리나가 이를 놓쳐 무사 1루에 주자를 내보냈다. 세인트루이스는 연장 13회초 대타 크리스 영에게 결승타를 내줘 4-5로 패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오늘 마이애미전 구위 살아날까

위기의 '괴물 투수'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다시 한 번 시즌 2승 사냥에 나선다.

류현진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전에 선발 등판한다.

이번 시즌 류현진은 6경기 1승 5패 30%이닝 평균자책점 4.99로 인상적인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5경기 이상 등판한 다저스 선발투수 중 마에다 겐타(5.03)에 이어 두 번째로 평균자책점이 나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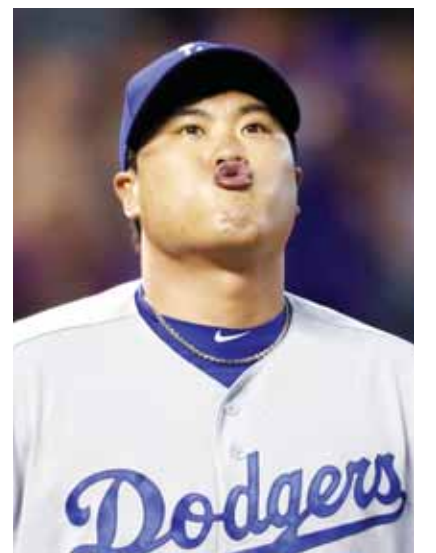
그나마 마에다는 최근 등판인 11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에서 8%이닝 2실점으로 호투해 류현진의 위기감은 더욱 크다.

올해 류현진이 고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구위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속구 구위 저하가 가장 큰 문제다. 2015년 5월 왼쪽 어깨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예전만한 구위가 나오지 않는다.

2013년과 2014년 류현진의 속구 평균구속은 91.3마일(시속 146.9km)이었지만, 올해 7경기에서는 89.95마일(시속 144.8km)로 떨어졌다.

예전 직구를 되찾는 게 가장 간단한 해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다. 대신 류현진은 투구 패턴의 변화에서 활로를 모색했다.

구속만 보면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수술후와 후가 크게 다르지 않다.

시합대에 오른 류현진에게는 위기가 자 기회다. 체인지업을 앞세워 마이애미 타선을 잠재우면 선발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반대로 다시 한 번 무너진다면 선발 마운드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강정호 항소심도 징역형 ML 복귀 사실상 좌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벌금형 선고 호소에 재판부 "1심 형량 무겁지 않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 선수가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메이저리거에서 뛰던 강씨의 선수 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야구에서 합의 판정인 경우 도 첫 번째 판정을 비디오 판독해서 그게 불분명하다면 원칙적으로 1심의 판정을 존중하는 걸로 안다"며 "이 사건도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에 반영됐다"며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 만큼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된 데 이어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

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강씨 측은 지난달 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거에서 뛸 수 없다.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죄값이 너무나 크고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미국 취업 비자 거부가 1심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선고 결과에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다. /연합뉴스